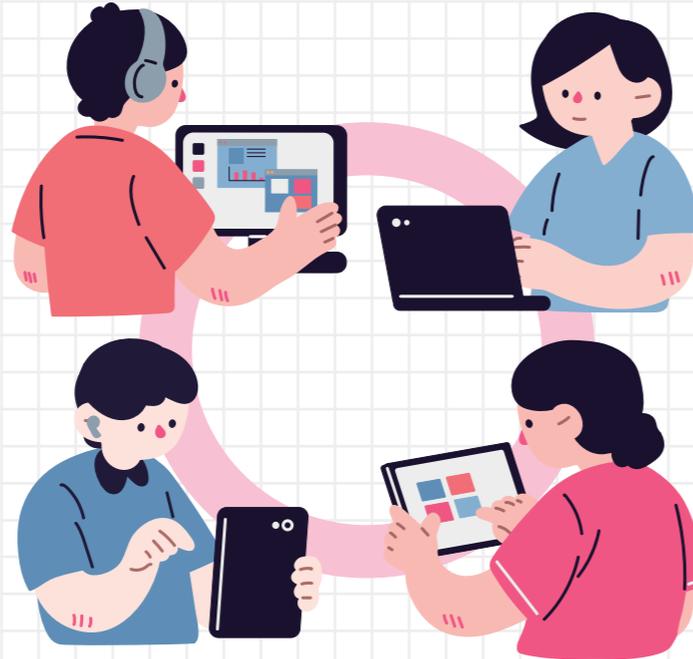


모여서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각족



밀레니얼 세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살아남기'가 아닐까 싶다. 때문에 이들은 유사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이되, '느슨한 강제성'을 느낄 수 있는 모임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한다. 함께하되 친목 활동은 최소한으로 하려는 사람들, 일명 '모각족'이다.

글. 편집부 자료. 트렌드인사이트

· 함께하지만 연결되지 않는 모임, 모각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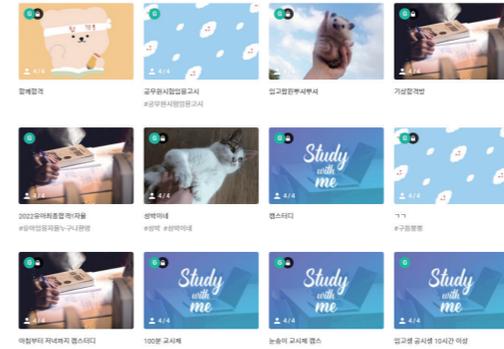
모각족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함께 모이되, 네트워크를 최소한으로 하며 자신의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되겠다. 이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인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인 셈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취업률과 경기 불황이 '살아남기'를 위한 노력에 더욱 불을 지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인한 과도한 관계 맺기에 피로감을 느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이처럼 타인과 연결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성장 욕구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모각족'이다.

모각족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가 모여서 각자 코딩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모각코'이다.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각코는 4~8명 정도 되는 인원이 스터디룸, 카페에 모여 각자 자신의 코딩을 하는 일종의 스터디 모임이다. 대부분 모임 시작과 끝 무렵에 코딩 관련 질의응답, 정보공유 정도의 커뮤니티 케이션만 이루어지고, 그 외 시간엔 각자 자신의 코딩

활동에 집중한다. 일반적인 스터디 모임과 다른 점은 개발자 간의 네트워크보다 개인의 '자기계발'이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 있지만, 각자의 활동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유하는 데에 만족한다.



·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모각족 모임 ·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공유한다고는 하나, 직접 대면을 해야 하는 모임이 부담스러운 모각족들이 즐겨찾는 것이 바로 온라인 스터디 모임과 웹캠 스터디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물 마시기', '하루 15분 독서', '아침 6시에 일어나 글쓰기' 등 자신의 목표를 인증샷 형태로 공유하는 모임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모각족을 위한 모임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모임은 강제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웹캠 플랫폼'을 활용한 모각족 모임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화상회의용 웹캠 플랫폼을 활용해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는 웹캠 스터디는 각자 정해진 시간에 웹캠을 켜 '영어 공부', '독서', '글쓰기' 등 자신의 할 일을 각자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역시 오프라인 모임과 마찬가지로 느슨한 강제성은 가지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언택트에 최적화된 모각족 모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 친목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극'이 우선 ·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모각족이 늘어나는 이유는 낯선 이들과의 '관계맺기'보다는 개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극'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실제로 인맥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모각족의 니즈는 충분히 충족되는 것이다.

성장 욕구가 높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 모각족.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확대되어가는 모각족 문화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현 사회의 특징과 앞으로의 방향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